

第143回國會
(閉會中)

5·18光州民主化運動
真相調査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時 1988年7月25日(月)

場所 勞動委員會

議事日程

1. 委員會運營에 관한件

審査된案件

1. 委員會運營에 관한件..... 13面

(14時25分 開議)

○委員長 文東煥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次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査特別委員會를 開議 하겠습니다.

變해 가는 世界 안에서 우리 韓國 政治도 國民이 다 원하는 방향으로 날로 變化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청산하고 새 내일을 맞이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査特別委員會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인 것 같습니다.

오래동안 우리 韓國사람들 우리 國民들 마음가운데 무겁게 눌러 있던 이것을 빨리 정리하고 새 民主化의 時代 統一의 時代로 전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國民的인 大和解를 위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해야 심층에서의 大和解가 이룩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룩되자면 우리 모두가 私心을 다 버리고 사실을 사실대로 國民 앞에 밝히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심껏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조속한 時日內에 國會가 그리고 國民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業務를 遂行 완성하도록 피차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鄭祥容委員 委員長!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말씀하십시오.

○鄭祥容委員 議事日程에 들어가기 전에 80年 光州抗爭으로 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거기에는 軍人도 있고 또한 光州 市民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희생자를 위해

서 委員會가 本格的인 討議에 들어가기 전에 희생자를 위한 默念을 提議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그동안 아픔을 가진 많은 國民들이 있는데 그들을 생각하면서 默念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提議 같습니다.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다 起立하셔서 祖國의 앞날을 생각하고 民主化를 위해서 애쓰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默念하시도록 하십시오.

(一同起立)

(一同默念)

앉아 주십시오.

(一同着席)

그러면 立法調査官 나오셔서 報告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立法調査官 鄭仁孝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委員長 文東煥 李敏燮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敏燮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오늘 第2次 會議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 特委活動이 本格的으로 稼動되게 된 것은 지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和解의 場을 여는 그런 하나의 歷史의 證人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가 默念을 했읍니다마는 이 默念의 의미는 光州에서 희생되신 많은 분들과 또 그 歷史的인 불행한 事件에서 같이 목숨을 바친 우리 젊은 兵士들에 대한 명복을

비는 默念도 함께 한즉이 된 것으로 이렇게 사회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會議를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귀중한 財産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委員會가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運營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 與黨 나름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歷史와 國民으로부터 本 特委에 부여된 가장 기본적인 責務가 지난 80年 光州에서 있었던 사태의 真相을 철저히 정확하게 규명하는 일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委員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무릇 真相調査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규명으로부터 접근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원인과 동기 등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거나 잘못 알려졌던 事實이 밝혀질 수도 있고 또 서로 相反된 證言과 主張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本 特委도 바로 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光州事態에 대해 어떤 사실이 정확한 真相이며 또 어느 주장이 바르고 믿을 수 있는 것인가를 명확히 가려내는 것이 特委活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個人的인 先入感이나 偏見 그리고 힘에 의한 強要가 개입되어서는 결코 정확한 真相糾明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本委員이 光州事態에 관한 진상조사를 완전 白紙狀態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더우기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은 光州事態에 대한 철저히 정확한 真相糾明이 매듭지어져야만 그러한 토대위에서 合理的이고 바람직한 治癒方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本委員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民選政府로서 第6共和國을 출범시킨 우리 民正黨도 野黨 못지 않게 바람직하지 않은 과거 우리 유산이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시각에서 光州問題解決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光州事態의 조속한 해결과 더불어서 지역간 계층간의 和解를 통한 國民和合 분위기의 조성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國民입니다.

그러나 지금 本 特委가 막 가동하고 있는 이 時點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가로 막고 있는 장애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면 우선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調査活動에 임하는 것만이 特委活動의 成功的인 결실을 보장한다 하겠습니다.

이제 막 本 特委가 진상조사를 시작하려는 입장에서 제가 평소에 존경해 왔음니다마는 우리 委員長님께서 또 裁判長 役割을 해야 하실 그러한 입장에서 첫 인사에서 光州事態가 軍靴에 짓밟힌 사태라고 미리 성격규정을 해버린 문제라든가 또 한쪽편에 서서 당사자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미리부터 단정하는 것은 앞으로 特別委員會 활동과 관련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가해자와 피해자가 관명되었다면 오직 처벌만 남아 있을 뿐이지 진위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 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이러한 先入感과 偏見으로 처음부터 성격규정을 해놓고 다른 한쪽에만 잘못이 있다고 罵倒한다면 구태여 事態真相을 가릴 필요가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더구나 本委員은 며칠전에 우리 文東煥 委員長께서 某 日刊紙와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고 마음이 매우 섭섭하고 많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委員長께서 所屬政黨이 있고 또 그 조직의 一員이기는 하지만 일단 憲法機關인 國會議의 特別委員長을 맡은 이상 중립적이고 公正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이 不文律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委員長께서는 委員長 資格으로서 「인터뷰」하시면서 一方的이고 偏向的인 視角과 주장을 보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서 무사공평한 입장을 취해야 할 委員長의 입장에서 진상조사는 물론이고 성격규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光州事態에 대해서 義舉니 虐殺이니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표현의 사용이 委員長 개인의 견해일 수는 있겠지만 公的 입장표명으

로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또 本委員은 앞으로 文委員長께서 이 特委運營을 이러한 방향으로 편향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委員長께서는 “政府가 나름대로 그때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았을지도 모른다”고 가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어떤 근거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말씀을 하실 근거가 있으면 밝혀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本委員은 앞서 지적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각별히 유념해야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委員長께 本 特委의 공정하고 순탄한 운영을 위하여 몇 가지 建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委員長께서는 本 特委를 공정하게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을 지고 계시는 만큼 本 特委의 진상규명 활동을 저해하는 어떠한 先入感이나 偏見을 일체 용납하지 않겠다는 운영방침을 분명히 해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光州事態의 전말을 밝혀내는 데는 與野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일에 남길 올바른 歷史의 기록을 위해서는 委員長을 비롯한 모든 委員들이 史官이 된 심정으로 불편부당의 객관적 입장에서 오직 眞實에 만 접근하고자 하는 진지한 자세가 절대 요청될 뿐입니다.

本委員은 이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 文委員長께서 한때 在野에 몸담았다는 입장은 물론 平民黨의 副總裁라는 現位置를 염두에 두지 마시고 솔선수범해서 모든 일을 원만히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렇듯 委員長께서 무사공평함의 귀감이 되어 주실 때 光州事態에 대한 초당적이고 공정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우리 委員들도 같은 입장에 서서 1次會議 때 委員長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에 貢獻하는 명실상부한 한 「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 本 特委의 會議雰圍氣는 물론 委員 각자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활동과 憲法에 규정된 免責特權이 명실공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숙한 傍聽秩序가 유지되

어야 하며 委員 각자가 어떠한 압력도 배제하고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見解와 所信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신성한 國會가 恨풀이의 마당이 되어서도 아니 되겠으며 집단적인 힘을 앞세워서 다른 견해를 묵살시키는 강압적인 행위가 있어서도 안됩니다.

특히 本 特委活動과 관련하여 委員 개인에게 精神的 物理的 危害를 가하는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째로 本 特委의 客觀的이고 공정한 활동을 위해 光州事態와 直接的인 관련이 제신 委員님들에 대해서는 本 特委에 참여하는 문제를 再考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3代의 같은 同僚委員으로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個人的으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光州事態 당시 鄭 雄委員께서 현지의 郷土師團長으로 戒嚴軍을 지휘하셨고 鄭祥容委員께서 당사자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마땅히 당사자는 증언을 할 수 있으나 스스로가 조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조사의 公正성과 客觀성을 상실할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感情的이고 主觀的인 견해와 판단을 가져올 염려가 없지 않고 그러할 때 이는 두분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本 特委활동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분 委員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충분히 당시의 진상을 밝힐 기회는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特委委員 모두가 陪審員과 같은 입장에서 光州事態를 다루어야 올바른 진상을 규명하고 또 國民들이 용납할 수 있는 결과를 導出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째로 本 特委活動의 궁극적인 목적이 國民和合에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地域感情을 惡化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委員長께서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本 特委의 지향하는 바가 恨의 처유인데 잘못되어 恨풀이 장소가 되어버린다면 자칫 特定人에게 영영 회복할 수 없는 새로운 恨

과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지역감정의 傷痕을 덧나게 만들 염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이를 政略적으로 악용하는 경우에는 政治報復 및 社會混亂 造成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本 特委가 獨自的 憲法機關인 만큼 真相調查活動에 있어서 司直當局의 調查活動과는 달리 화해와 관용이라는 시대적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완벽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本委員은 우리 모두가 책무를 충실히 완수함으로써 國民 모두의 여망에 부응하는 歷史의 證人이 되겠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먼저 제가 委員長으로서 저에 대한 간곡한 忠言이 있었기에 거기에 대해서 제 對答을 여쭙고 그리고 平民黨 쪽에서 두 委員에게 대한 發言에 대해서 어떤 反應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으로서 저는 엄정하게 不偏不黨하도록 할 것을 所信으로 생각하고 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約束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會議는 제 理解로써는 白紙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大統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國會에서도 이런 委員會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光州에서 民主化運動으로 일어났던 사람들 軍들이 過剩鎮壓을 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是認하셨습니다. 그 是認과 더불어 이 調查가 始作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記憶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表現하는데 혹시 民主黨 분들에게 感情에 거슬리는 것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新聞에 몇번 記者들과 對談한 일이 있었는데 그 때에는 委員長이라기 보나도 平民黨의 立場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委員長의 立場으로서는 절대 엄정하게 中立을 지킬 결의이고 혹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나 치우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나 忠告해 주시면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우리 李敏燮委員님 말씀하신 것처럼 냉정하

게 사실을 糾明하는 그래서 빨리 治療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같이 努力해 주시기를 바라고 서도 그 결의를 다시한번 다짐합니다.

平民黨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委員長!」하는 이 있음)

먼저 金仁坤委員 말씀하세요.

○金仁坤委員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이 委員會에 들어 올 때 우리는 白紙狀態에서 正義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決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어떤 政治的인 宣傳자라가 되어서도 안되고 또 어떤 個人 特定人的 政治的인 利用物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말잔치 場所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李敏燮委員의 말씀중에는 좋은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너무도 처음부터 政治性이 介入되어 있다 하는 感을 저 個人으로서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不當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는 8年前 近 10年前에 일어났던 事件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當時에 參加했고 당했고 보았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정의로운 것을 眞實을 發見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當時에 參加했고 당했던 사람들이 과연 자기 感情을 介入해가지고 虛偽를 陳述한다든지 이런 것은 不當하지마는 오히려 진정하게 眞相 그대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오히려 우리가 알을 해나가는데 더 效果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누구는 나가라 누구는 그만뒀라 하는 얘기는 지극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意味에서 제 意見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든지 너 나가라 너 나가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얘기는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복숨을 걸어놓고... 물론 31師團長하신 분은 이 內容에 대해서는 이제 밝혀 보면 아시겠지만 그 當時에 당한 분이 계시요. 그런데 너는 당했으니까 그만 뒀라 말하는 가운데서 證言하는 가운데서 虛偽證言을 할 때에는 우리는 분명히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당에서는 그것을 前提로 해서 아는 사람은 다 배놓고 모르는 사람만 앉아서 얘기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새로 오신 분 人事를 먼저 드리게 하고 그리고서 이 얘기를 계속했으면 좋겠네요. 서로 얼굴을 알기 위해서 民正黨의 羅昌柱委員님께서 새로 補任되어 오셨읍니다.

人事하시기 바랍니다.

○羅昌柱委員 民主正義黨의 羅昌柱委員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어떻게 할까요? 李敏燮委員께서 말씀하신 것을 議決해 달라는 것 보다도 參考해 달라 하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李敏燮委員 저희 黨의 促求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崔鳳九委員 저도 조금 전에 李敏燮委員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委員長님께서나 우리 委員會에 參加하신 분들께서 不偏不黨한 생각을 가지고 公正無私하게 이 委員會活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저도 同感입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 전에 金仁坤委員께서 發言하신 것처럼 이 光州事態에 지금 그 당시에 參加하기 보다는 그 당시에 現場에 계셨던 우리 鄭雄委員이나 鄭祥容委員께서 現場에 있었다 해가지고 여기 委員會에서 배제시켜야 된다는 이런 뜻은 저는 전적으로 反對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 委員會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그 당시 現場을 잘 모릅니다.

모르고 그 당시 실정도 잘 모르는데 지금 白紙狀態에서 출발하는 이 입장에서 그 당시 사정을 잘 알고 그 당시 現場에 계셨던 분은 우리 委員會活動을 위해서 지름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분이 물론 그 被害當事者일지는 모르지만 직접 調查對象者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調查를 하는 목적은 그 事態의 眞實과 그 事態가 일어났던 그 배경에 대한 모든 眞實을 밝히려는 것이지 鄭雄委員이나 鄭祥容委員 두분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두분의 어떤 事態에 관련

된 점을 調查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분은 그 당시 現場에서 생생한 어떤 記錄을 머리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분이 특정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 委員會에 參席했다는 것은 절대로..... 李敏燮委員의 오히려 先入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두 委員에 대해서는 더 이상 舉論치 말고 어차피 國會에서 이 두委員이 지금 本 委員會 委員으로 參加했으니깐 여기에 대해서는 더 舉論치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두분의 그 당시 現場의 생생한 어떤 現場參觀記錄이 오히려 우리들 委員會活動을 위해서 엄청난 利益을 줄 것이고 調查活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本委員은 이 두분 委員에 대해 우리 委員會 委員資格에 대해서 일체가 이후 舉論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李炳勇委員 말씀하세요.

○李炳勇委員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委員會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실을 調查하기 위해서 모인 이 機構에서 직접 그 眞相을 목격한 사람 직접 체험한 사람은 이 우리 委員會에 필요한 證言과 사실의 現出에 최고의 또는 가장 최상의 資料提出 내지 資料를 現出시켜 주는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아는 사람이니까 委員으로써 좋다 그말은 成立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白紙狀態에서 사실을 調查해야 합니다. 자기가 체험한 사람은 白紙狀態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까 委員長님께서 大統領께서 이미 이렇게 말했으니깐 白紙狀態에서는 출발할 수 없고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그것도 안되는 말이올시다. 大統領이 그렇게 보았던 누가 보았던 이제 우리 委員會가 憲法上的 機構으로써 발족된 이상 누가 어떻게 보았던 우리는 우리 憲法上的 機構으로써의 사실을 규명해야 하고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委員會에서 직접 체험한 사람이고 직접 목격한 사람이고 직접 被害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委員으로서 適格이다 그러면

체험 안한 사람은 委員으로서 더 不適格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真相調查特別委員會라면 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被害者 加害者 目擊者는 委員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단 우리 李敏燮委員께서 그렇게 促求하는데 그쳤습니다.

꼭 그렇게 안하고서는 우리가 이 委員會 活動을 안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즉 一般的論으로 보아서 委員長께서 한번 판단해 보실 때 이러한 委員會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證人이 되어야 할 사람이 그 委員으로서 동시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공정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國會의 委員會나 가령 裁判의 경우 예를 들면 직접 그에 관계되었던 목격자가 그 審判의 위치에 안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 審判의 결과가 어떠한 쪽으로 기울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事實을 調査함에 있어서 白紙狀態부터 출발한다는 그 자체가 말하자면 일체의 先見이나 편견을 안 가진 사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은 일체의 편견이나 이런 것을 안 가진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李敏燮委員께서 그와같은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두 분 委員님의 인격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同僚委員 위치에서 우리는 真相調查하는데 그 두 분이 그 누구보다도 자세한 것을 이 자리에 현출시켜 주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자격과 그 委員의 한 사람으로 있는 것은 어딘지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했을 뿐입니다.

○李海瓊委員 議事進行發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두 當事者인 두 委員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중에는 일리가 있는 말씀도 있고 때로는 政略的 차원에서 하는 의미가 내포된 것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本委員은 이번 光州의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委員會의 所任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마음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特委가 기하는 가장 중요한 所任은 결국 光州에서 희생당해서 지난 8年동안 불명예스럽게 살아온 市民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고 이 가장 중요한 所任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委員은 어느 黨이나 어느 個人的 政策입장을 떠나서 한 동족에 의해서 동족이 殺害된 서로간에 싸움을 벌인 지난 8年前의 事態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委員의 이번 特委에의 參與는 사실을 규명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자기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우리가 特委의 最終的인 結論이 恨을 치유해야 할 사람들에 의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거부될 적에 特委의 所任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두 委員은 그 치유를 받아야 할 光州市民으로부터 國民의 代表로 選任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光州에서 恨을 치유받아야 할 만큼 이분들에게 당신들의 恨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所任을 부여한 사람들입니다. 그 點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委員이 當事者로서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난 1次 特委에서 1次 會議에서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분은 바로 委員長을 選出하고 幹事委員을 選出하는 이 表決에 참가하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두분의 表決의 참가에 의해서 幹事가 選出이 되고 委員長의 選出에 의해서 이 特委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特委의 運營에 있어서의 원활성과 相互協調를 기하는 자세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듭니다.

마지막으로 國會議員은 어느 누구든지 登院하면서 開院國會에서 國家利益에 우선하여 活動할 것을 이미 國民 앞에 宣誓를 하고 議員活動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저도 議員活動을 시작하면서 宣誓를 하고 시작을 했고

문제를 제기한 李敏燮委員께서도 宣誓를 하고 시작 했을 줄입니다. 바로 그런 취지로 두 분도 宣誓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宣誓는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고 國民앞에 진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宣誓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宣誓를 두분이 當事者라고 해서 배재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바로 두분이 國民앞에 宣誓하는 憲法의 규정을 약간 소홀히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本委員은 그런 問題點을 지적하신 것을 두분이 앞으로 特委活動을 하시는데 있어서 가능한 限 客觀的 中立性을 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촉구의 말씀 정도로 알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면 4黨間의 幹事會議에서 다시 한번 非公式으로 얘기해볼 수는 있는데 오늘은 이만하고 오늘 委員會 運營에 관한 몇 가지 案件이 있기 때문에 그 案件으로 넘어갈 것을 勸諭합니다.

○金仁坤委員 오늘 지금 이 자리에 委員이 아닌 國會議員 몇 분이 제십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言論界에 계신분이라든가 立法官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議員들은 미안하지만 退場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會議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委員長 文東煥 傍聽席에 앉은 것은 괜찮죠.

○鄭東星委員 鄭東星委員입니다.

두분 委員에 대한 문제는 李敏燮委員께서나 또 李炳勇委員께서 촉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本委員은 더 再論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委員長께 우리 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査 特委의 원만한 運營을 위해서 한 두가지만 더 議事進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委員長께서 어느 特委보다도 가장 공정하게 議事進行을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셨다면 오늘 그와 같은 議事進行發言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第1次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우선 처음 한 會議에서 委員長 人事말에는 편견... 이런 것 해서 안된다고 하시면서 스스로 여러가지 편협된 이런 표현이 계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엄정하게 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原則的으로 한다면 지나간 會議에서의 편협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될 이런 문제입니다마는 오늘 엄정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과를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人事말씀을 통해서 “過剩鎮壓은 大統領께서 시인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더이상 真相調査를 할것이 없죠. 이러한 표현 用語의 표현에 있어서도 委員長께서 각별히 더 이상의 우려가 없도록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言論에 報道된 내용이 平民黨의 立場에서 그렇게 했노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 特委는 特定政黨을 代表하는 委員이 있습니다마는 委員長께서는 國民의 궁금증과 全國民의 關心事가 직결되어 있는 이 문제에 관한 限 어느 特定政黨을 代表하기 보다는 國會特委 委員長으로서의 모든 말씀이 항상 계셔야 委員들이 마음놓고 가장 공정한 議事進行이 될 수 있도록 議事에 협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委員長께서 委員會의 원만한 運營부터가 委員會가 가장 공정한 調查活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炳勇委員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敏燮委員이 委員長님이 앞으로 공정하게 해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고 두 委員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으면 사실은 委員長께서 두 委員의 말씀을 듣고 또 이쪽에서 남득이 되면 빨리 진행이 될 것인데 오히려 딴 의견이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 같아서 委員長께서 두 委員의 말씀을 한번 들으시고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두 委員 말씀해 주세요.

○鄭 雄委員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려는 찰나에 先後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염려해 주신 平民黨의 鄭雄委員입니다.

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査特別委員會를 政治的인 문제와 관련시켜 가지고 이 「테이블」에서 論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가 바라고 싶은 하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本委員은 光州民衆 市民들로부터 真相調査를 확실히 糾明해 달라 하는 요청을 받고 光州로부터 바로 登院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는 조금 國會에 登院하게 된 동기에 있어서 일부 差異點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해 주셔야 될 事項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光州民衆愛國市民들의 恨맺힌 입장을 代辯해 줘야 될 本委員이 이 調查委員會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은 必然的이고 당연하며 아주 歷史的인 召命이라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냉엄한 현실에서 이 문제는 個個人的 利害關係가 얽혀 있는 것이 아니고 막바로 國民과 國家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國會의 本會議를 통해서 이미 國政調查權이나 다음에는 特別委員會가 바로 發議돼 가지고서 현재 이 時點에 이른 것이 아닙니까?

民正黨에서 말씀이 계시는 事項에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다고 하면 저나 여기에 곁에 앉아 있는 鄭祥容委員이나 직접 그 당시에 있어서 光州問題에 막바로 관여했던 사람들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民正黨에 앉아 계시는 李光魯委員께서는 光州事件이 終結되고 불과 1週日 뒤에 國보위 特別調查委員會의 委員長으로서 활동하신 분이요 다음에 앞으로 實質的으로 이 문제가 12·12事態와의 관련이 있을 것인지 여부는 더 한층 조사가 진행돼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저기에 앉아 있는 鄭東鎬委員께서는 바로 靑瓦臺 秘書室長의 重責을 맡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엄격히 따진다면 이 문제와 관련되고 있는 先後를 따진다고 했을 때 그와 같은 것도 잘 선별해서 論議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直接的이나 間接的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런 事項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한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너희들 둘은 光州問題와 직접 관련된 사람이니까 우리를 選出해 준 有權者의 소망과 바라는 모든 요구를 묵살하고 여기서 實質的으로 各黨의 代表로 選出해 냈던 委員會에 있어서의 이 委員들이 이 시점에 있어서 資格의 기준이 있느니 없느니 委員으로부터 제거됐으면 좋겠다느니 이와 같이 얘기한다는 그 자체는 조금 순위가 뒤바뀐 事項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유독 本委員과 鄭祥容委員만을 거론 한다는 자체는 當事者인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結論的으로 本委員이 特別委에 있으면서 결코 害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어느 委員께서 말씀이 實質的으로 이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당시의 前後事가 이렇게 된 것이라 客觀性있게 얘기해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또한 더 확고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조사에 臨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만약에 허위를 진술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때에 크게 책망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도리어 달게 받고 이 委員會가 원만하게 任務를 수행하는 데 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民正黨側에서는 본인들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어떠한 커다란 파도가 있는 것같이 생각하지만 도리어 현재 民正黨이 안고 있는 그 裏面이라고 그럴까 그 자체에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事項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피차간에 각기 처한 입장에서 우리가 더 한층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窮極的으로는 光州民主化運動의 真相糾明이니까 어떠한 것이 더 真相糾明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로온 特別調查委員會의 활동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을 감안하신다면 더 한층 特別調查委員會가 원할하게 운영되어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本委員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는 特別委員會에 남아서 光州義學의 真相을 糾明하고 責任者를 정말 國民 앞에 밝혀 내고 나아가서는 아까 어느 委員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는 靈魂도 있고 7年동안 또한 8年동안 5共和國으로부터 現時點에 이르기까지 많은 遺家族이나 負傷者 다음에는 기타 犧牲者들이 얼마만큼 억압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恨을 이 時點에서 완전히 풀어주기 위해서는 國民의 召命을 받은 本委員이나 鄭祥容委員이 현 위치에 나와서 이 特別調查委員會에서 기여하곤 생각이 산절한 것이며 결코 저는 그와 같이 행동을 할 것입니다. 언뜻 當事者인 입장에서 세가 느낀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鄭祥容委員 오늘 자주 거명되고 있는 鄭祥

容입니다.

오늘 사실 本格的으로 이 光州問題에 대해서 論議에 들어가는 이 時點에서 本人으로서 는 여러 가지 감개가 무량합니다.

좀 전에 李敏燮委員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우려사항이나 또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 個人的으로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 있어서 저는 李敏燮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려가 너무 그렇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입장에서 光州真相調査에 임하는 입장 그리고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제 개인의 입장을 좀 밝히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는 國會에 들어오면서 또 光州真相調査를 하기 위한 이 特別委員會에 들어오면서 몇 번이고 제 감정의 덩어리를 많이 던지고 들어왔습니다.

現 執權黨인 民主黨 委員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면 상당히 분개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만약 감정의 찌꺼기를 계속 가지고 이 문제에 참여하고 있다면 光州市民들이 주장하는 虐殺元兇이라는 사람들과 매일 얼굴을 대하는 國會아닙니까? 이 國會에서 어찌 수 많은 同僚들과 兄弟들을 잃어버리고 감정을 삭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光州市民의 뜻에 의해서 國民의 代表者로서 國會에 진출하는 순간 모든 문제를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 鄭祥容이가 真相調査를 하는데 더 더군다나 全 世界의 耳目이 집중되어 있고 이 民族問題를 해결하는데 가장 암초라고 하는 光州問題를 해결하는데 公開裡에 真相調査作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제가 만약 어떤 편향된 입장을 가지고 真相調査作業에 임했을 때 또 저뿐만 아니라 어떤 누가 편향된 입장을 가지고 真相調査作業에 임했을 때 그것은 많은 國民들로부터 또 世界人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리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첫째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 볼 수 있으나 本委員의

양식과 그리고 저를 보내주신 光州市民들을 위한 양식을 의심치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 이 문제를 조사해가는 데 있어서 모든 委員들은 白紙狀態에서 出發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理論上으로는 될 수 있으나 실제로 現實적으로 白紙狀態에서 出發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李敏燮委員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이 鄭祥容이는 光州關聯者로서 懲役을 살고 많은 同僚들을 잃어버리고 또 계속 8年동안 그 울음바다와 정말 피눈물나는 光州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감정의 응어리가 끊이질 않을 것이다 그래서 真相調査作業을 하는데 있어서 客觀性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거꾸로 얘기를 드린다면 여기에 앉아 있는 委員들 모두가 이 光州問題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光州問題는 第5共和國을 남게 한 큰 事件이었습니다. 그 事件으로 5共和國의 執權黨이 생겼고 5共和國을 이끌어 왔었던 모든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6共和國도 그 連結線上에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光州問題에 대한 利害當事者나 關聯者라고 하는 것들이 特定人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 光州問題하고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客觀적으로 真相調査作業을 해 가느냐 안해 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良識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을 의심하는 얘기입니다. 제 개인의 良識을 의심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심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존경하는 委員님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國民들은 7個 特委중에서 가장 의심스럽게 보는 特委가 光州特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光州真相調査가 어느 정도稼働이 될 것이냐 얼마나 客觀性 있게 真相調査가 될 것이냐 얼마나 파헤쳐질 것이냐 하는 疑懼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限界에 부딪히지 않겠느냐 하는 疑懼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國民들의 疑懼心을 이제 멀쳐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與野 立場을 떠나서 어떤 當事者가 아니고 傍觀者의 立場을 떠나서 이 光州問題는 외 民族問題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기필코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온 國民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확신을 주도록 처음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當事者라고 그래가지고 鄭 雄委員과 저를 배제시킨다고 한다면 많은 光州市民들이 이 真相調査作業이 시작할 때부터 벌써 真相調査作業은 절대 限界에 부딪힐 것이다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여기계신 委員님들께서 光州真相調査作業을 하기 위해서 光州 그때 狀況을 많이 熟知하시고 또 많이 알고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마는 지금 현재 여기계신 委員님들중에서 光州 그때 展開됐던 그때 당시의 狀況과 그 이후의 狀況을 一目瞭然하게 머리에 꼭 담고 계시는 분이 한 분이랄도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 진행된 狀況을 一目瞭然하게 머리에 담고 계시고 어떤 證言者가 나왔을 때 그 證言者에 대해서 그때 그때 그 狀況에 대해서 즉각 물어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저는 정말 다행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다른 여기에 계신 어떤 분보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그때 狀況을 많이 알고 있고 목격했던 사람으로 자신합니다. 제가 特委에서 빠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 보다도 더 그때 狀況을 잘 알고 직접 목격을 했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다른 분이 이 特委에 들어와서 이 真相調査作業을 저보다도 더 훨씬 열심히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特委를 빠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장이 없는 가운데서 이 真相調査作業을 철저히 해 가고자 하는 國民들의 요구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狀況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뺀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國民들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정말 誓約을 하려면 몇번이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客觀的인 立場을 가지고 정말 감정의 찌꺼기를 버리면서 물론 사람이니까 다 버리지 않겠지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을 버리면서 이 문제의 真相調査라고 하는데 客觀的인 立場을 취해달라고 하는 誓約을 하라고 한다면 百番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이제 누가 當事者인 아니건 그런 立場을 떠나야 합니다.

이제는 이 작업을 해 가는데 있어서 얼마나 效率的으로 얼마나 철저히 해낼 수 있느냐 여가에 모든 우리의 원칙이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李敏燮委員님의 그런 우려를 저 또한 이해를 하면서도 그러한 우려는 크게 염려하실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發言을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얘기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民主黨에서 얘기를 안 했으니까 한 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리하도록 해 보십시오.

○吳景義委員 民主黨 吳景義委員입니다.

지금 先輩委員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 光州真相을 調査하는 데는 추후도 與野가 있을 수 없고 또한 個人에 따른 利害關係가 감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民正黨에서 李敏燮委員이 말씀하신 그 뜻도 特定人을 비방하거나 本 委員會所屬을 위해서 일이 앞으로 진척되는 과정에서 잘못 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저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로지 우리들의 使命이 막중하고 文字 그대로의 真相을 조사하는 데는 어떠한 경우에도 黨利黨略을 떠나서 우리들의 使命이 막중한 것 만큼 우리는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되고 또한 私心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本委員은 들었

읍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鄭 雄委員이나 鄭祥容委員님의 말씀도 저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國會議員을 하겠다는 사람이 政治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光州特委에 所屬되어 있는 각委員은 각 政黨에서 光州問題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委員 누구보다도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하는 큰 使命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孔子님 말씀에 “公於勇戰하고 私於怯戰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公益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한 경우이라도 용감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이것이 공익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私益을 위하는 일 黨利黨略이나 내 개인의 어떤 영달을 인기를 위해서는 本委員會에서는 감히 발을 붙여서 일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鄭 雄委員님이나 鄭祥容委員님은 저도 평소에도 존경하는 先輩님들이시지만 적어도 本委員會에 所屬이 되어서 일을 하면은 추호도 私心이나 私益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한 분들이라고는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이 자리에는 너 나가 없습니다. 한 치의 보탬도 부족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죽어서 벌써 흙이 된지가 오랜데 아직까지도 죽인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 하나도 이 문제를 내가 책임지고 내가 했노라고 나설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本委員의 先輩委員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歷史의 왜곡됨이 없어 새로운 歷史를 만드는 데 또한 歷史가 굽은 것을 바로 잡는 데 本委員會에서는 최선을 다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民主黨에서도 오늘 두번째 모임입니다. 마는 會議를 하는 것으로는 처음인데 資料問題 또한 證言問題 證人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앞으로 진척될 과정에 어떤 것을 먼저 우선을 해야 되느냐 幹事會議에서 누차 얘기가 있었습니다. 資料關係로 인해서 오늘 「비디오」를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黨에서도 光州事態에 따른 모든 資料를 冊子로 만들어서

오늘 1次會議에 가지고 나왔읍니다.

이 자리에 계신 先輩委員님들의 個人의 충분한 資料蒐集과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바라건대는 어떠한 경우이라도 民正黨과 平民黨 民主黨과 共和黨에 所屬되어 있다는 本人의 所屬感보다는 本委員會에 비중을 더 크게 두고 항상 委員長 중심으로서 이委員會의 召命을 다 해야 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간략하게 앞으로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는 날까지 우리 委員會부터 和合과 和解를 이루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원래의 목적이 處罰보다는 和解입니다. 기필코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는 날까지 與野委員 여러분들께서는 私心을 버리고 우리들부터 和合하는 가운데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고맙습니다. 다음 李光魯委員 말씀하십시오.

○李光魯委員 民正黨의 李光魯委員입니다.

鄭委員께서 저를 指稱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사실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光州事態 당시 東海岸 東草에서 그쪽의 野戰 指揮官을 하고 있었습니다. 6月3日에 서울에 올라 왔읍니다. 그 전에 政府에서 4部 合同調查를 나가는데 戒嚴하기 때문에 軍人이 나가야 되는데 제일 適任者라고 그래서 제가 나갔던 것이지 결코 國보위 소속이…… 그 후에 國보위가 되었습니다. 그래나는 任命받는 날 任命狀을 못받고 光州로 내려 갔었습니다.

그때 法務部에서 檢事 들 安企部에서 그때 말하는 中央情報部 國防部 內務部 이렇게 4部가 나갔읍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民和委 당시에 쪽 「매스컴」에서 내 所屬이 그 후에 國보위에 왔다는 것으로 國보위 國보위 해서 그랬는데 전혀 國보위 調查團이 아니라 政府調查團으로 내려 갔었습니다.

둘째로 전부가 다 國民의인 차원에서 連帶責任이 있다 하는데는 그것이 다 共感이 갑

니다. 그렇게 엉클어져서 책임이 있다는 데는…… 그렇지 않다면 우리 李敏燮委員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시에 光州地域의 軍指揮官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관계되는 분이 아니냐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게 뭐 絶對적으로 鄭將軍이 자격이 없다 하는 꼭 못박아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杞憂心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저는 결단코 光州事態 그 당시에는 東海岸의 東草에서 6月3日까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光州도 잘 모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도 모릅니다. 전以北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李敏燮委員 제가 얘기를 꺼냈으니까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우리가 13代에 歴史的으로 같이 同參해서 무엇인가 國家와 民族을 위해서 같이 일하자고 李海瓚委員 말씀대로 선서까지 한 입장에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을 참 마음아프다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일에는 성격이 있고各自的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분명히 光州事態真相調查에 있어서 證人の 역할이 더 중요하냐 調查委員會의 역할이 더 중요하냐 할 때는 우리 鄭祥容委員 말씀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調查委員은 자기의 의견을 그 事態에 관해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證인이 실감있게 現場事情을 더 얘기함으로써 事實接近의 좋은 기회가 오히려 더 많다는 그런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에 관해서는 제가 더이상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오늘도 鄭 雄委員님을 證人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마는 調查委員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또 證人자리에 나가서 證言하고 이러한 것이 이 會議에 공정하고 또한 냉정한 會議進行에 도움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이 문제는 우리 黨으로서 강력하게 우리 委員長님한테 촉구를 하고 결정하는 문제는 물론 相對方 政黨이

있으니까 거기서 할 문제입니다마는 저희의 뜻을 강력히 촉구를 하고 앞으로 지금 그러한 문제에 저희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感情의 응어리를 놓아두고 오셨다고 하면서도 어딘지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비춰지는 것을 볼 때 앞으로 特委活動過程에서 이런 것이 재연되고 더욱 가열될 경우에 우리 特委活動에 어떤 지장과 영향이 올 것인가 저희가 우려를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의 의사를 촉구하고 처음 문제를 提起한 만큼 이제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委員長님이나 다른 政黨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로 알고 저희는 계속해서 촉구해 나가겠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委員長 文東煥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본래 李敏燮委員님 말씀하실 때도 決議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促求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를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깊이 모두가 感情的으로 영킨 일이기 때문에 調查하기가 사실 더 힘듭니다.

아까 李海瓚委員도 말했지만 平民黨에서도 이것을 참작해서 다시 검토해 볼 것이라고 幹事會議에서 이것이 다시 거론이 되어서 우리의 목적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真相이 더 바르게 더 깊게 공정하게 표현되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깊이 관여했던 두 委員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모두가 자기의 感情을 사실 극복한다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또 先入觀을 완전히 버린다는 것도 사실 누구에게 있어서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이 다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또 先入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없는 법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같이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은 최대한의 私心없는 事實糾明하는 것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特別委員會 活動을 補助해 주시는 職員들을 紹介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吳聖均 立法審議官을 紹介합니다.
그 다음에 鄭仁孝立法調查官을 紹介합니다.
金基英行政事務官을 紹介해 드립니다.
金容九行政事務官을 紹介해 드립니다.
吳相力主事를 紹介해 드립니다. 李廷得主事
를 紹介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職員人事)

앞으로 많이 수고해 주셔서 일이 잘 순조
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1. 委員會運營에관한件

(15時28分)

○委員長 文東煥 이제 日程 第1項으로서 委
員會運營에관한件을 上程합니다.

「올림픽」前에 전체를 단번에 일하기는 힘들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이제 어떤 시각에서 어
떻게 運營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上程합니다.

말씀해 주실 분 말씀하십시오.

○李敏燮委員 오늘 議題가 특별한 것이 없고
처음 시작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委員會 運營
에 관한 문제를 第1 議題로 결정을 해서
사실 두 번째 會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4黨 幹事會議에서 앞으로의
活動問題라든가 다각도로 意見提示도 있었고
또 절충이 된 부분은 절충이 되었고 또 아
직은 서로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남
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委員會는 우리가 全體會議를 하
는 입장에서는 4黨 幹事들의 원만한 事前調整
또는 事後調整을 통해서 委員會 運營에 관
한 權限은 위임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욕심이고 그것이 委員會의 원활한 運營을 위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오늘은 지난번 幹事
會議때 아까 委員長 말씀대로 각자가 政黨
입장에서 資料提出을 政府側에다가 하도록 하
고 또 그것은 幹事들이 취합을 해서 共通된
것은 共通되는 대로 분리될 것은 분리되는
대로 나중에 우리가 處理를 하도록 이렇게
意見を 대충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會議를 하는 문제 또 그런
문제는 나름대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與野
가 그 幹事會議에서 의논된 것을 많이 양해

하고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
니다.

○李海瓊委員 李敏燮委員님 말씀하신 것에 대
해서 補充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이번이 光州特委로서는 두번째 모임입니다마
는 실제로 8月 한달 끝나고 나면은 定期國
會가 시작되기 때문에 調查活動에 있어서의
時間的으로 상당한 제약이 있으리라고 보
니다.

그래서 가능한 限 8월에 어느정도의 調查
가 진전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本委員의 기본입장이고 또 여러 委員들도 마
찬가지 생각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요청하는 資料하고 각
黨에서 證人으로서 필요로 하는 名單이 오늘
提出이 되면 그 名單을 가지고 일단 서로
중복되는 것을 조정하는 그런 幹事 모임을
하고 8月 두번째 週日쯤에 일단 證言을 들
을 수 있는 그런 會議가 되었으면 하는 바
램입니다.

그래서 具體的인 日程은 幹事會議에서 조정
하기로 하고 또 추후에 결정을 했으면 합
니다.

두번째로는 調查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각
委員분들이 대단히 많은 資料를 소화하여야
되고 또 때로는 상당히 條文的인 내용까지도
파악을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번 13代國會가 성립하면서 國會活
動의 원활화와 또 충분한 내용을 갖는 國會
를 만들기 위해서 聽聞會制度도 도입을 했고
國政監查法도 상당히 監查範圍를 넓혀 놓았습
니다.

특히 國政監查法 第6條에는 常任委員會活動
내지는 特委活動에 있어서의 내용을 풍부히
하기 위해서 專門家를 事務補助員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專門家를 위촉하는 그러한 事
項까지 포함해서 幹事會議에서 議題로 다룰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本委員의
바램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우리 委員會를 오늘 하기로
된 것이 요전에 幹事會議에서 서로 합의한
것이 요청할 資料를 준비해서 가지고 오게
하고 또 證人으로서 채택될 名單을 가져오게

하고 각기 資料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자 이것은 案件으로 했읍니다마는 사실 간단히 이루어질 문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사해서 한번 모이자고 한다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테니까 8月 둘째 週에 모여서 하기로 하자 하는 제의와 또 동시에 專門인 조사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專門補佐委員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제의가 들어온 것이 됩니다.

○吳景義委員 지금 民正黨 李敏燮委員과 또 平民黨 李海瓚委員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저희 民主黨 사정도 그렇고 저희들 幹事들 會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읍니다마는 사실상 중요한 이 委員會에서 빠른 시일내 어떤 결론을 매듭지어서 國民들의 궁금증이나 바라는 바에 충족을 시켜서 저희들 소임을 잘해야 되겠는데 現實으로 各黨에서는 현재 다른 委員會에도 여기 오신 분들이 관계를 하고 있고 또 한 외유를 하신다든지 또는 「올림픽」관계를 생각을 한다든지 저희들 國會議員들이 어제 「올림픽」委員會도 갔다 왔읍니다마는 실로 중대한 대사를 앞두고 萬에 하나 이 문제를 다루다가 또한 이 방향이 판데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리의 중요한 이 문제는 그것대로 다루면서도 충실히 병행할 수 있는 이런 여러가지 여건을 조성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幹事會議에서 말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부탁말씀은 물론 各黨에서는 그렇게 잘 하시리라고 믿읍니다마는 내일이라도 우리 委員 全員이 나와서 이 일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고 1週일에 한번쯤이라도 모임을 갖는 것이 좋겠으나 우선에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으니 委員 여러분들은 各黨의 幹事님들한테 가능한 限 여러가지 시간이나 全權을 오히려 저희들이 짐을 질테니까 밀어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런 다음에 부탁 말씀은 資料라든지 그의 委員會에서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은 委員 여러분들께 충분히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전제하에서 저희들 幹事들이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작하셔가지고 앞으로 運營

方針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그러면 具體적으로 누가 成案해 주시겠어요?

○李敏燮委員 幹事委員님들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運營에 관한 문제 또 다음 會議召集問題 또 資料의 취합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 幹事들한테 위임을 해 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모든 것을 일체를 幹事들에게 委任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提議가 있습니다.

○吳景義委員 저는 正式으로 動議를 하겠읍니다.

(「중읍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文東煥 異議가 없읍니까?

그러면 이제 얘기된 여러가지를 정리해서 幹事會議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리고 幹事會議에서 얘기했던 關係書類나 證人名單 이런 것은 資料 그것을 그대로 서로 교환하면 되는 것이니까 다 提出하고 가시면 우리가 교환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읍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단 오늘 가지고 오신 것은 提出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것은 그렇게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밖에 다른 얘기 오늘 되어야 될 것이 없읍니까?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일단 停會를 하고 「비디오 테이프」를 보도록 하겠읍니다.

停會를 宣言합니다.

(15時40分 會議中止)

(17時6分 繼續開議)

○委員長 文東煥 會議를 續開합니다.

오늘 會議는 이것으로 마치고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7分 散會)

○出席委員

文 東 煥	金 吉 弘	羅 昌 柱
辛 脚 植	李 光 魯	李 肯 珪
李 道 先	李 敏 燮	李 炳 勇
鄭 東 星	鄭 東 鎬	趙 榮 藏
李 海 瓚	鄭 祥 容	鄭 雄

崔鳳九 吳景義 崔正植
金仁坤 趙富英 鄭夢準

○出席專門委員吳立法審議官

立法審議官 吳聖均

【報告事項】

○特別委員變更

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交涉團體
5·18光州民主化運動 真相調查特別委員會	崔在旭	羅昌柱	民主正義黨

(7月22日字)